

2 종합

무전공 입학 확대... 신입생 4명 중 1명 ‘열린 전공’으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무전공 입학 모집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경영대(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공대 기계공학과 ▲외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호관대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신입생 모집 유형이 ‘열린전공 유형 2’로 추가된다.

이는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무전공 유형2에 해당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추가 가산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전공 유형2는 학문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의 무전공 모집 유형이다.

이번 개편은 무전공 입학 정원 선발을 확대하려는 대학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전략기획팀은 “2025학년도에 열린전공 유형1을 신·증설하며 본격 도입한 이후, 대학은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교육혁신의 목적으로 열린전공 유형1과 유형2에 참여하는 단과대 및 학과의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 수입 확대 기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

이번 개편으로 전체 신입생의 26.6%(유형1 11.6%, 유형2 15%)가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추가 가산점을 확보,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략기획팀은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정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유선택제로 운영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 단계의 혁신 성과에 대해 가점 최대 15점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히 몇 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부재정지원 수입을

얼마만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략기획팀은 “지난 27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앞으로 절차들이 남아 있다”면서 “해당 절차들이 다 통과된 후 6월 말이나 7월 초쯤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안으로” 기존 교육과정 유지하기도

개편에 따라 내년도 경영학과와 회계·세무학과는 ‘경영회계계열’로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은 1년 동안 경영회계계열 과정을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경영학, 회계·세무학중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기계공학과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기계공학부’로 입학한다. 다만 다른 학과와 달리,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전공 과정을 설계하고, 전공 인증을 통해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은 현재 논의 중이다. 회계·세무학과 최연식(경영학) 학과장은 “내년도 수강강의 편성이 10월, 11월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교육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학과 관점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에, 학생 전공 전문성이 약화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계공학과 이병찬(기계공학) 학과장도 “교육과정은 올해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는 기존 운영 형태가 열린전공 유형2와 큰 차이가 없어 교육과정상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두 학부는 원래부터 유형2 형식으로 운영되던 학부



라 기존 체제나 교육과정 변화는 없다”며 “입학 요강에만 열린전공 유형 2로 참여하는 학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호관대 행정실 오은희 계장은 “지난 4월경 전략기획팀에서 열린전공 유형2 참여 제안이 왔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존 학부 체제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화 지점으로 “관광엔터테인먼트 학부는 현재 신입생이 2학기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체제인데, 개편을 통해 1학년이 끝나고 2학년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도록 바뀐다”고 설명했다.

쏠림 현상·세부 전공 설계 등 우려는 여전

다만 전공 쏠림 현상 우려는 여전히 불안한 지점이다. 회계·세무학과 최 학과장은 “2학년 진학 시 몇 퍼센트가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를 선택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학생 전공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대 행정실 손승연 계장은 “전공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이용해 향후 수업 운

영에 반영하려 한다”며 “아직 시행 전이기에 예측되는 상황에 사전 준비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공학과 이 학과장은 “굉장한 자유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만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에 익숙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과 학생회에서 수강 과목 선택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학과에서는 어떻게든 학생과의 친밀도를 높여서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

학소위는 이에 “분담금은 소수자인권 옹호라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행동, 집담회 등 행사나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집행한 비용”이라며 “타 대학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소위가 제공한 실제 지출 내역에는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5,000원, ‘윤석열 탄핵 대응 집담회 강의실 대여’ 28,000원, ‘윤석열 탄핵 찬성 유인물 제작’ 20,000원 등이 포함됐다.

“학소위는 폐쇄적인 대표성” “자치단체 독립성 훼손”

위와 같이 학소위에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및 대안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학소위는 폐쇄적인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회원제 자치기구”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안 기구로 제안하는 인권복지위원회도 특별 자치기구로 존재하되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보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소위는 회칙에 따라 본회 정치

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회원 자격은 가입 신청서 및 제출과 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학소위는 “학내 특별자치기구가 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 시스템”이라며 “후마 대학생 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처럼 정회원·준회원 제도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하며 정회원은 신청 절차 혹은 위원장단의 인준을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폐지는 의결권 남용” “정당한 절차로 반민주적 아냐”

학소위는 안건 통과에 “시험 기간 중 절차적 숙의 없이 긴급히 폐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의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신 회장은 “해당 논의는 회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다양한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 구조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졸속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접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일 열리는 임시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표자 논의가 이뤄진 뒤,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5일 열릴 정기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찬반 의결을 진행한다. 정기 학운위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올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시 학운위 이후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학소위는 임시 학운위 전까지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소위 측은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학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